



전남대 여수캠퍼스 전경

## 학생수·전공 축소 등 대학 경쟁력 되레 추락

지역 유일 국립 종합대였던 여수대학교가 전남대로 통합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지만 통합 당시 약속됐던 주요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대학경쟁력 등은 오히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10주년을 맞아 재단법인 지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했던 이행각서에 포함된 사항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여수시가 지식산업 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 주요 사항으로는 ▲대학통합 이후 미지는 지역사회 영향 및 통합 효과 분석 ▲대학 운영비교 ▲향후 개선대책 등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로 전남대가 통합 당시 지역민과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 등 주요 사항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통합각서 이행 촉구와 지역사회와 연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요 합의사항 제대로 지켜진 것 없어> 여수대 이삼노 총장과 전남대 김정채 총장은 지난 2005년 6월 양 대학 통합을 위한 이행 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12개 항의 합의 조항이 포함된 당시 통합 각서에는 통합대학 명칭과 여수캠퍼스 특성화 추진, 한의대 유치와 한방병원 설립, 통합지원금 사용 등 핵심 사항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수대와 통합 조건으로 전남대가 제시했던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과 옛 여수대 국동 캠퍼스에 전문 병

### 전남대 여수캠퍼스 통합 10년...효과 분석해 보니

한의대·전문병원 설치 등 이행각서 내용 대부분 안 지켜  
지원금 급감·공동화 현상 속 분리 독립 요구 목소리 높아

원 등의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지원금 300억원 중 150억 원을 여수캠퍼스 특성화사업에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식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양해각서 주요내용 중 캠퍼스 명칭 사용만 지켜졌을 뿐 다른 조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재정지원 부분도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학교 규모도 오히려 크게 줄었다. 지난 2005년 4691명인 여수캠퍼스 학생 수는 올해 3357명으로 1334명이 줄었다. 이 감소폭은 광주 캠퍼스에 비해 23배에 달한다. 여기에 옛 여수대인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광주 캠퍼스로 전과한 학생은 705명인데 비해 광주에서 여수로 이동한 학생은 1명밖에 되지 않아 캠퍼스 공동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학사운영도 통합 전 50여개 전공에서 지금은 32개 전공으로 축소돼 입학정원만 335명 감소했고, 대학원생과 교수, 직원들 숫자도 통합 전보다 300여 명이 줄었다.

국고지원도 전남대 광주캠퍼스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남대에 지원된 국고 지원금은 2011년 2599억원, 2012년 2628억원 등 총 7800억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비해 여수캠퍼스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성화 지원 재정지원금 등도 크게 줄어> 대학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특성화 지원 사례도 대폭 줄었다.

지난 1917년 5월 1일 국내 최초 수산 교 육기관으로 개교한 옛 여수대는 이후 90여년 동안 수산해양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과 대학으로 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전남대와 통합 이후 특성화 지원·운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경우 통합 전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특성화 분야에 지원됐지만, 지난 2014년도 예산은 4억원 정도로 줄었고 지금은 이마저도 아예 중단된 상태다.

재정 지원금도 크게 줄었다. 통합 전 여수대 정부 지원금은 한해 200억 원이 넘었지만 지난 2013년 기준 여수캠퍼스 재정지원금은 47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대와 수산해양대가 큰 폭으로 줄었고, 언어와 평생교육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 분리 요구 여론확산> 이처럼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주요 조항들을 거의 지키지 않아 여수캠퍼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추진회’ 회원 1000여명도 최근 여수 하든베이 특 급호텔에서 전남대-여수대 통합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더 이상 여수 캠퍼스의 추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남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주도해 온 여수시의회 전창근 의원은 “인사·예산 등 결재 권한이 모두 광주캠퍼스에 있고, 캠퍼스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 침체도 심각하지만 전남대는 약속이행은 물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며 “지역민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약속이행 촉구하고 독립채산제 전환, 분리 독립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남도와 여수시가 한국바스프㈜와 7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 28일 여수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사측과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5800만 유로(730억 원 상당)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 전남도·여수시, 한국바스프와 730억 투자협약

독일에 본사를 둔 정밀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오는 2018년까지 여수공장에 ‘폴리페닐설폰(Polyphenylsulfone) 수지 생산 라인을 갖춘 제2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폴리페닐설폰’ 수지는 무공해 자동차, 공신장 투석기용 필터, 해수담수화 필터,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소재로 쓰인다.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시

설은 바스프 공장 중 독일 외 지역에서는 여수에서 첫 번째로 설비돼 연간 6000t 생산 규모로 가능 중이다. 전남도는 제2공장 증설로 연간 1만2000t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420억원 상당의 생산품이 국내는 물론 중국, 인도, 대만 등에서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01@

### 웃음 실은 유람선

개그콘서트·코미디빅리그 초청  
미남크루즈호, 16일까지 공연

여수 밤바다에 뜬 유람선 위에서 웃음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유람선 ‘미남크루즈’ 운항사인 ㈜여수하림은 여수밤바다 야경 관광과 함께 최근 TV와 케이블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콘서트’와 ‘코미디 빅리그’ 팀을 초청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인다. 개그콘서트 간판 코너인 ‘황해쇼’의 이수지, 이상구, 신운승, 홍인규, 홍순목, 정찬민 등이 직접 출연해 TV에서 보여주지 못한 비장의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를 끄는 코미디 빅리그 ‘사망토크’의 이상준, 예재형, 김기욱 등이 출연

해 여름휴가로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여름밤의 웃음 폭탄’을 선사한다. 지난 25일 처음 선보인 이 공연은 오는 16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야경 관광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미남크루즈호는 1321t에 승선인원 1085명 규모로 엑스포 스퀘어 앞을 출발해 오동도~거북선 대교~하백 등대~종포 해양공원~이순신 광장~전남관~장군도~돌산대교를 돌아오는 구간으로 1시간 30여분 운항한다. 문의 (061-665-3737)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GS에너지, UAE 원유 국내 직도입 개시

해외 자원개발 성과... 1차 물량 50만 배럴 여수공장 들어와

GS에너지(대표이사 나완배 부회장)가 지분 참여를 통해 조광권을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초대형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의 국내 직도입(直導入)을 개시했다.

GS에너지는 지난 31일 여수시 GS칼텍스 공장에서 문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김병열 GS칼텍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UAE 육상생산 광구 원유 국내 직도입 임향식’을 가졌다.

앞서 GS에너지는 지난 5월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UAE의 최대 생산광구인 아부다비 육상석유 운영회사(ADCO) 생산유전에 3%의 지분 참여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S에너지는 이달 초 자회사인 GS칼텍스와 올해 말까지 UAE 육상생산광구에서 생산한 머반유(Murban Crude) 900만 배럴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1차 도입물량인 50만 배럴이 GS칼텍스 여수공장으로 들어왔다.

이번 원유 임향은 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원유를 국내에 직공급하는 것으로서, 국가 자원개발을 제고하고 원유의 안정적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토목상 생산원유 직도입 임향식

GS에너지는 지난 5월 글로벌 석유 메이저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초대형 생산유전(일 160만 배럴 생산)인 ‘아부다비 육상생산광구’의 지분 3%를 취득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외유전개발 역사상 단일사업 기준 최대규모인 하루 약 5만 배럴, 향후 40년간 약 8억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프랑스 토탈(Total)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사들과 광구를 공동 운영하며 선진 자원개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

나완배 GS에너지 대표회사는 “이번 원유 첫 직도입은 국내 해외유전개발 역사상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석유공사의 협조가 큰 힘이 됐던 만큼 앞으로도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 등 국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매체입니다.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신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부곡소	02)313-5962

광천	966-8375
광남	722-9440
광부	652-0175
광동	264-2012
광문	222-9054
광부흥	225-6001
광문백	267-4782
광선	672-4688
광북	675-5530
광무	525-3781
광서	372-2352
광산	369-0683
광하	676-6605
광안	312-7732
광산	571-7654
광치	306-7001
광봉	522-7752
광우	512-8116
광천	371-9818
광월	961-9339
광중	222-1956
광흥	224-6804
광진	673-1600
광단	973-2900
광치	256-8242
광평	376-6511
광남	682-8112
광하	959-1800
광화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